전법 일기

불사금 10억원과 1원 많지도 적지도 않네

건축비가 많이 오른 시기였던 2023년, 여러 신도들의 걱정과 근심 속에 새로운 법당을 짓고자 신축불사 모연을 시작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10년 동안 도심포교당을 운영하면서 겪은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긴 고민 끝에 용기를 낸 결정이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 시작한 불사라서 신도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 일이 있었다. 오랜 시간 함께 하셨던 신도들 중에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사에 보시 동참을 하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 것이다. 신도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운영하는 포교당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다. 보시를 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시기와 질투심으로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더욱 나를 힘들게 했다. 그때, 나는 사무량심(四無量心) 중 희무량심(喜無量心)에서 수희공덕(隨喜功德)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도들과의 법문의 시간을 가졌다.

"수희공덕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수행을 잘하거나 공덕 짓는 일을 하면 내가 성취한 것처럼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수희공덕이 중요한 이유는 남이 하는 일, 잘되는 일을 보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나의 일처럼 좋아하고 기뻐해주면 그것이 곧 나의 공덕이 된다는 점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남이 하는 착한 일을 보고 수희찬탄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바로 향기를 공유하는 것과 같아서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 주는 사람의 것이라고 수희찬탄의 공덕을 말씀하셨다. 보시하는 데는 3가지가 청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 하며 삼륜(三輪)이란 베푸는 자(施者)와 받는 자(受者)와 보시한 물건(施物)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깨끗할 때 비로소 참된 보시가 된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베풀어지는 시물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베풀고 받는 그 행위에 어떤 불순한 목적이나 상(相)에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는 자는 거만함이 없어야 하고 받는 자는 비굴함이 없어야 된다. 주었으되 준 것이 없고 받았으되 받은 것이 없는 그런 무위의 베품을 '삼륜공적(三輪空寂)'이라고 한다.

그렇게 "불사를 하는 데는 10억도 많지 않고 1원도 적지 않다"는 말로 법문을 마쳤다.

그 후 신도들은 물질적인 보시만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일일노동 보시, 권선 등을 실천하며 무사히 신축불사를 마쳤다. 지금도 열심히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힘을 보태 주시고 계신다. 보시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더욱 거룩한 보시일 것이며, 그 공덕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 스님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⑥ 서산대사 휴정의 오도송

'역설'로 '문성오도'를 전하다

〈聞聲悟道〉

대낮의 닭 울음소리

머리털이 희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髮白非心白)
옛 사람은 일찍이 말했네(古人曾漏洩)
문득 대낮의 닭 울음소리 듣고(今聽一聲鷄)
대장부 할 일을 모두 마쳤네(丈夫能事畢)

홀연히 깨닫고 본래 내 집에 이르니(忽得自家底)
온 세상 사물이 그대로 진리의 세계로세(頭頭只此爾)
천언만어 팔만 금보장경이(萬千金寶藏)
원래는 하나의 빈 종이였네(元是一空紙)

서산 대사는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사서를 외우는 천재이나 10세에 조실부모한 고아였다. 시를 잘 짓는 신동이라는 소문이 나서 고을의 군수 이사증이 양아들을 삼아서, 한양으로 이주해 12세에 성균관에 특례 입학했다.

서산 대사는 27세에 지리산에서 참선 수행을 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남원 봉성마을을 지나가다 갑자기 정오 대낮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활연히 깨달음을 얻고 두 수의 오도송을 지었다.

보통 오도송은 한 수만 전하는데, 두 수의 오언절구가 그의 문집 〈청허당집〉에 전하고 있다. 전편의 시에서 '설(洩)'과 '필(畢)'을 운으로 하고, 후편의 시는 '이(爾)'와 '지(紙)'를 운으로 한 것이다. 두 편의 시를 하나의 오언율시로 보면 운이 맞지 않는다.

전편 시 "머리털이 희게 세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 사람은 일찍이 말했네"의 싯구는 인도의 불조 제3조 상나하수 존자가 제4조 우파국다 존자에게 한 법문을 용사(用事)하였다. 오도송이나 선시에는 경전이나 선사의 어록에

대낮의 닭 울음, 선가의 돈오성 상징해
서산 대사, 선이 시로써 문학 되게 하고
시가 선으로써 사상과 깊이를 더하였다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경우가 있다. 그것은 깨달음의 내용과 표현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에서 깨달음의 공통된 내용은 '마음' '공' '중도' '중생즉불' 등이다.

닭은 새벽에 울어 어둠을 몰아내고 여명을 여는 전령사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대낮의 닭 울음소리는 선가의 돈오성(頓悟性)과 역설(逆說) 전환의 충격적 울림을 통한 깨달음을 준다. 서산 대사는 대나무 소리를 듣고 깨달은(擊竹悟道) 향엄 선사처럼 문성오도(聞聲悟道)했다.

마음의 본래 자리인 불성을 보면 견성성불이다. 일체가 마음이 만드는 일체유심조이고, 유심소현(唯心所現)이다. 번뇌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져 더 이상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무학위(無學位)인 아라한의 해탈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서산 대사는 출가 대장부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쳤다고 갈파했다.

후편 시는 홀연히 깨달아 나의 본래 마음의 집(자성 불성)에 돌아와 바라보니 이 세상이 그대로 부처의 정토요, 중생이 부처이다. 부처님이 설한 팔만대장경이 '깨달음을 이룬 중생의 마음' 하나를 기록한 것이니 "천언만어 팔만금보장경이 원래는 하나의 빈 종이였네"라고 읊었다.

그의 한시는 시의 운율과 대구(對句), 평측(平仄) 등에 있어도 유가 시인들의 격조에 뒤지지 않았다. 당송의 명시와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등향로봉시' "만국의 도성은 개미집 같고, 천추의 호걸은 초파리 같구나"가 있다. 서애 유성룡은 선조대왕에게 이 시가 남아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잘 드러낸 명품시라고 찬사하는 시평을 하였다.

한국문학사에서 서산 대사만큼 찬사를 받은 시승은 없다. 그의 선시는 선이 시로써 문학이 되고, 시가 선으로써 사상과 깊이를 더하였다. 조선 선시문학의 수평을 높였고, 조선 후기문학에 큰 영향을 줬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Remind' 문수 스님 가르침

5월 31일.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이날은 문수 스님이 낙동강 한 둑방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날이기도 하다. 14년 전 오늘, 스님은 무수한 살생을 멈추고자 준엄한 질책을 남기고 스스로를 불살랐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수질 개선, 가뭄·홍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을 정비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곳곳에서 반생명성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 터져 나왔다. 그래도 사업은 강행됐다. 수백대의 포크레인이 강을 파헤치고 뒤집었다. 그러는 동안 강에 의지해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이 스러져갔다.

문수 스님은 참담한 현실에 마음 아팠다. 무수한 생명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스님은 끝내 목숨을 내던져 호소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절박함과 간절함이었을 것이다.

스님의 간절한 염원도 4대강사업은 막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강은 독성을 내뿜는 '녹조라테'로 가득하고, 낙동강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존의 공간이 죽음의 강으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 처분하고,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예고했다. 보 재가동을 위한 사전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제2의 4대강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의 끔찍한 재현이다. 되살아난 금강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짓밟는 폭거"라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14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참혹한 죽음이 반복된다면, 이젠 우리의 목숨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상생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목숨을 바친 문수 스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내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커지는 병원비에 '한숨'

네팔 이주민 무큰다씨, 뇌종양 아내 치료비 2억원
5년 이상 장기치료 필요…재발가능성 여전히 높아
빚만 4천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감당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